

1. 유러의 출범

1999

년 1월 1일을 기해 유럽연합(EU) 15개국 중 11개국이 동맹

한 유러(EURO) 통화가 출범되면서 세계경제의 지각변동과 함께 유러(Euro)화 대(對) 달러(Dollar)화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로마제국 이래 천년만에 이루어진다는 유러 동맹 11개국의 현재 경제지표를 보면 2억 9,000만명에 달하는 인구, 세계 GDP

미가입국들이 동참하게 되면 유러화 동맹은 엄청난 경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러화의 출현이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유러화는 출범 직후부터 11개 회원국의 국제·국내 상거래 결제에 통용되면서 3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2002년부터는 마르크, 프랑, 리라 등 기존 화폐는 없어지고 대신 유러 지폐와 동전으로 완전 대체된다. 바야흐로 세계 금융·경제를 주도



21세기 양돈산업 어떻게 변할 것인가?

유러화 출범과 국내 양돈산업과의 관계



김정주 교수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의 19.4%에 달하는 6조3,0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 18.6%에 달하는 총교역량 등 미국과 비등한 또 하나의 경제대국이 출현된 셈이다. 더구나 유러화의 출현은 통화 금융보다 훨씬 높은 의미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유러화의 정착을 눈여겨 보고있다. 더구나 앞으로 유럽에 유러화를 중심으로 완전히 통합된 시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배가되고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등

할 또 하나의 기축통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세계시장은 미국의 경제 비중을 비해서는 달러가 과도하게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불균형 상태이다. 이같은 국제시장의 왜곡은 유러화에 의해 상당 부분 교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부문은 이미 외환보유액, 채권 등 포트폴리오(분산 투자)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유러화의 비중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세계의 총 외환 보유고 중 41%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러화 비중 높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도 총 1,4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 중 3분의 1을 유러화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와 유러화의 양극체제로 재편되면서 엔화이탈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엔화의 위상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국채시장 개방, 엔화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엔화의 국제화 조치와 함께 아시아의 엔화 경제권 구축의 필요성을 은근히 역설하고 있으나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지도력으로서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2. 유러화의 영향

이러한 유러화의 등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개도국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에 물려있는 세계의 자본을 유러화가 강력하게 흡입하면 아시아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본 공급 등에 애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수출경쟁력의 상대적 저하이다. "1998년이 국제금융위기의 해라면 1999년은 무역위기의



의 해"라고 경고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유러화의 출범으로 어려워질 무역환경 악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간 압축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출에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수출이 증가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과 소득이 확대되며, 이는 다시 내수를 진작시킨다. 더구나 지금처럼 내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수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수출이 유러화의 출현으로 장애를 받는다면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우선 수출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액은 1997년에 169억달러 수준이었고 1998년에는 11월까지 164억달러를 수출했다.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에 12.4%에서 13.5%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유러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게 되면 유러화 동맹국의 대외무역창출효과보다는 역내 무역전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유러화가 안정되면 유럽 역내 교역이 늘어나게 되고 자급자족 체제가 심화하면서 우

▲유러화의 출현은 유러화 동맹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 여파는 한국과 일본시장에까지 파급되어 결국 한국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리의 수출 경쟁력은 둔화될 것이다. 유럽역내 기업들은 유러화 사용으로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역내 거래비용도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진기지역할을 해온 동유럽 국가까지 유러화 통화권내에 편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유러화는 출범하면서부터 막강한 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당 환율이 1.18로 발표되었고 장기적으로도 달러화보다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는 완전한 독립성이 부여된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해 역내 물가와 통화신용정책이 엄격히 통제되므로 유러화 가치와 안전성 등 투자대상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러화의 강세는 달러화의 약세로 이어져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므로 결국 원화의 낮은 환율이 예상된다.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하는 기업의 수지가 악화되어 결국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수출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될수록 돼지고

유러화의 강세는 달러화의 약세로 이어져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므로 결국 원화의 낮은 환율이 예상된다.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하는 기업의 수지가 악화되어 결국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수출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될수록 돼지고기 등 소비가 위축되는 불황이 지속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기등 소비가 위축되는 불황이 지속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상의 절차로 미치는 영향

은 일본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본의 무역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양돈 대일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제 유럽연합이 통화의 국경을 없앴으로써 역내 국가간의 정치적 국경마저 점차 희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서 그동안 무역환경분야 등에서 한목소리를 내던 유럽연합은 더욱 큰 목소리를 내게 되어 그동안 세계 강대국 역할을 줄곧 해오던 미국과 유럽연합의 한판 승부가 국제 정치무대에서 벌어질 것이며, 이 와중에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요컨대 유러화의 출현은 유러화 동맹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 여파는 한국과 일본시장에까지 파급되어 결국 한국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양돈**

본지 캠페인

돼지콜레라를 박멸합시다